

수자원공사, 중국 수리부 산하 장강수리위와 협력 20주년 맞아

윤 선병규 기자 | 승인 2026.05.14 08:45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 개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물산업 협력 및 물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교류 행사가 실시됐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2일 대전 본사와 연구원에서 중국 수리부 산하 장강수리위원회(Changjiang Water Resources Commission)와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2006년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올해 20주년을 맞아 열렸다.

장강수리위원회는 중국 최장 하천인 장강(양쯔강) 유역의 수자원 계획과 관리, 홍수·가뭄 대응 등을 담당하는 통합물관리 기관이다.

이날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마수이산(Ma Shuishan) 장강수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의 물관리 전환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기후위기로 홍수와 가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 예측과 통합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동연구 확대, 전문가 교류, 국제 수자원 분야 협력방안 등 향후 실무 협력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수공은 그동안 총 15차례에 걸친 기술교류회와 함께, 아시아물위원회를 비롯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해외 전시회를 통해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AI 정수장 등 자체 개발한 디지털 물관리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교류회에서는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수자원 관리’를 주제로 ▲수자원 정보 분석 및 물배분 기술 ▲댐 인프라 디지털트윈 구축 및 운영 ▲글로벌 수자원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수공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관리 및 댐 운영 고도화 방안을 소개했다.

장강수리위는 장강 유역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대규모 수자원 관리 경험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장강수리위 대표단은 교류회와 연계해 수공 본사 물관리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디지털 물관리 기술이 적용된 실제 운영현황을 견학했다.

한편, 양 기관은 대규모 유역과 수자원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수자원 정책, 댐 운영, 수재해 대응 등 물관리 분야의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해 왔다.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 의장 윤석대) 창립 초기부터 함께 참여한 인연도 바탕으로, 양자 교류와 다자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기술교류회 기념사진. 사진 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마수이산(Ma Shuishan) 중국 장강수리위원회 부위원장.



대전 K-water연구원에서 중국 장강수리위원회와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의 환영사가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병규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장강수리위, 20주년 기술교류회

양 기관, AI 및 디지털 트윈 기반 물관리 협력 강화 논의

기사입력시간 : 2026/05/13 [14:40:00]

백지선 기자



▲ (사진=한국수자원공사)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지선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중국 장강수리위원회와 기술 협력 20주년을 맞아 물관리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12일 대전 본사와 연구원에서 열린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는 양 기관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 물관리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장강수리위원회는 중국 최장 하천인 장강 유역의 수자원 계획, 홍수 및 가뭄 대응을 총괄하는 통합물관리 기관이다. 양 기관은 2006년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20년간 수자원 정책과 댐 운영, 수재해 대응 등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공유해 왔다. 또한 아시아물위원회(AWC) 창립 초기부터 협력하며 다자간 국제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교류회에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마수이산 장강수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위급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의 물관리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통합 운영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댐 운영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장강수리위원회는 장강 유역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대규모 수자원 관리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과 AI 정수장 등 자체 개발한 기술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해 왔다.

장강수리위원회 대표단은 이번 교류회와 연계해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물관리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대표단은 이어 충주댐 수력발전 및 수상태양광 사업 현장과 과천 한강유역본부 물종합상황실을 견학하며 현장 중심의 기술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기술교류회는 20년간 축적된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물관리 협력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양 기관의 현장 경험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계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HOME](#) [뉴스](#) [수자원/환경](#)

水公-中 장강수리위, 물관리 협력 20주년 기술교류회

자체 개발 AI-디지털 물관리 역량, 한-중 물관리 협력의 미래 의제로 확대

박승원 기자 | 승인 2026.05.13 14:34



지난 12일 진행된 기술교류회. 사진=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 본사와 연구원에서 중국 수리부 산하 장강수리위원회와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6년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어온 양 기관 협력 20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대규모 유역과 수자원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수자원 정책, 댐 운영, 수재해 대응 등 물관리 분야의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해 왔다.

이날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마수이산(Ma Shuishan) 장강수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AI·디지털 기반의 물관리 전환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기후위기로 홍수와 가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 예측과 통합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동연구 확대, 전문가 교류, 국제 수자원 분야 협력방안 등 향후 실무 협력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교류회에서는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수자원 관리'를 주제로 ▲수자원 정보 분석 및 물배분 기술 ▲댐 인프라 디지털트윈 구축 및 운영 ▲글로벌 수자원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수자원공사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관리 및 댐 운영 고도화 방안을 소개했으며, 장강수리위원회는 장강 유역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대규모 수자원 관리 경험을 공유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기술교류회는 20년간 축적된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물관리 협력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양 기관의 현장 경험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계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승원 기자 rkatnpwon@cenew.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수자원공사, 중국 장강수리위원회와 물관리 기술교류회 개최

한권수 기자 | 승인 2026.05.13 12:30

| 사·디지털 물관리 역량, 한·중 협력 의제로 확대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충청타임즈]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중국 수리부 산하 장강수리위원회와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는 2006년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어온 양 기관 협력 20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

장강수리위원회는 중국 최장 하천인 장강(양쯔강) 유역의 수자원 계획과 관리, 홍수·가뭄 대응 등을 담당하는 통합물관리 기관이다.

양 기관은 지난 20년간 수자원 정책, 댐 운영, 수재해 대응 등 물관리 분야의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해 왔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장강수리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의 물관리 전환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홍수와 가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 예측과 통합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동연구 확대, 전문가 교류 등 협력 방향도 공유했다.

장강수리위원회 대표단은 교류회와 연계해 수자원공사 물관리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디지털 물관리 기술이 적용된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봤다.

윤석대 사장은 "양 기관의 현장 경험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계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중국 장강수리위, 20년 협력 넘어 디지털 물동맹 강화

조남준 기자 | 승인 2026.05.13 10:01

한·중 물관리 기술교류 20주년 ...홍수가뭄 대응 AI·디지털트윈 공동 협력
윤석대 사장, 장강수리위원회 대표단과 고위급 면담 통해 협력 방향 구체화



12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기술교류회를 계기로 진행된 면담 이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마수이산(Ma Shuishan) 중국 장강수리위원회 부위원장)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로 전 세계 물 재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대표 물관리 기관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물관리 협력 강화에 나섰다. 단순 기술 교류를 넘어 AI 기반 통합 물관리와 글로벌 물산업 협력으로까지 의제가 확대되면서, 향후 아시아 물안보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2일대전 본사와 연구원에서 중국 수리부 산하 장강수리위원회와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2006년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이어온 협력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중국 장강(양쯔강) 유역의 수자원 계획과 홍수·가뭄 대응 등을 담당하는 장강수리위원회는 세계 최대 규모 하천 유역 관리기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양 기관은 지난 20년간 대규모 유역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수자원 정책과 댐 운영, 수재해 대응 분야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이번 교류회는 기존 수자원 운영 협력을 넘어 AI·디지털 기반 물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미래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마수이산 장강수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AI·디지털트윈 기반 물관리 전환과 공동연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의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 예측과 통합 운영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공동연구 확대 ▲전문가 교류 ▲국제 수자원 사업 협력 ▲디지털 물관리 기술 공유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수자원 관리'를 주제로 ▲수자원 정보 분석 및 물배분 기술 ▲댐 인프라 디지털트윈 구축 ▲글로벌 수자원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AI 기반 물 수요 예측과 스마트 댐 운영, 디지털트윈 플랫폼 등 자체 개발한 디지털 물관리 기술을 소개했다. 중국 측은 장강 유역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초대형 유역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대표단은 행사와 연계해 K-water 물관리종합상황실과 충주댐 수력발전·수상태양광 사업 현장, 과천 한강유역본부 등을 방문해 실제 디지털 물관리 운영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양국 기술교류를 넘어 글로벌 물산업 경쟁 구도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AI 산업 성장과 기후위기 심화로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기반 물관리 플랫폼과 스마트 수재해 대응 기술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AI 정수장과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등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은 초대형 유역 운영 경험과 대규모 실증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보완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향후 양 기관 협력이 아시아물위원회(AWC) 등 국제 네트워크와 연계될 경우, 한국형 디지털 물관리 모델의 해외 확산과 글로벌 물시장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기술교류회는 20년간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물관리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양 기관의 현장 경험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계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남준 기자

HOME > 기업 > 기업

[한국수자원공사] 중국 장강수리위원회와 물관리 협력 20주년 기술교류회 개최

워터저널 | 승인 2026.05.18 08:56

자체 개발 AI·디지털 물관리 역량, 한·중 물관리 협력의 미래 의제로 확대
윤석대 사장, 장강수리위원회 대표단과 고위급 면담 통해 협력 방향 구체화
20년 정기 교류 기반으로 공동연구·전문가 교류·글로벌 사업 협력 확대



한국수자원공사는 5월 12일 중국 수리부 산하 장강수리위원회(Changjiang Water Resources Commission)와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사진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5월 12일 대전 본사와 연구원에서 중국 수리부 산하 장강수리위원회(Changjiang Water Resources Commission)와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6년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어온 양 기관 협력 20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

장강수리위원회는 중국 최장 하천인 장강(양쯔강) 유역의 수자원 계획과 관리, 홍수·가뭄 대응 등을 담당하는 통합물관리 기관이다. 양 기관은 대규모 유역과 수자원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수자원 정책, 댐 운영, 수재해 대응 등 물관리 분야의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해 왔다.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 의장 윤석대) 창립 초기부터 함께 참여한 인연도 바탕으로, 양자 교류와 다자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날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마수이산(Ma Shuishan) 장강수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의 물관리 전환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기후위기로 홍수와 가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 예측과 통합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동 연구 확대, 전문가 교류, 국제 수자원 분야 협력방안 등 향후 실무 협력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총 15차례에 걸친 기술교류회와 함께, 아시아물위원회를 비롯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해외 전시회를 통해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AI 정수장 등 자체 개발한 디지털 물관리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교류회에서는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수자원 관리’를 주제로 △수자원 정보 분석 및 물배분 기술 △댐 인프라 디지털트윈 구축 및 운영 △글로벌 수자원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관리 및 댐 운영 고도화 방안을 소개했으며, 장강수리위원회는 장강 유역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대규모 수자원 관리 경험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장강수리위원회 대표단은 교류회와 연계해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물관리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디지털 물관리 기술이 적용된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봤다. 또한, 충주댐 수력발전 및 수상태양광 사업 현장과 과천 한강 유역본부의 물종합상황실을 견학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류도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기술교류회는 20년간 축적된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물관리 협력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양 기관의 현장 경험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계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중국 장강수리위원회와 협력 20주년 기술교류회



박찬수 기자

2026.05.13 오전 09:32

공동연구·전문가 교류·글로벌 사업 협력 확대



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마수이산 중국 장강수리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는 12일 대전 본사와 연구원에서 중국 수리부 산하 장강수리위원회와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6년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어 온 양 기관 협력 20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대규모 유역과 수자원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수자원 정책, 댐 운영, 수재해 대응 등 물관리 분야의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해 왔다.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 의장 윤석대) 창립 초기부터 함께 참여한 인연도 바탕으로, 양자 교류와 다자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아시아물위원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해 2016년 설립한 아시아 최대 물 분야 협력기구로 현재 중국, 캄보디아 등 26개국의 정부와 공공기관 등 171개 기관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의장기관으로서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전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마수이산 장강수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의 물관리 전환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기후위기로 홍수와 가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 예측과 통합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동연구 확대, 전문가 교류, 국제 수자원 분야 협력방안 등 향후 실무 협력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윤 사장은 "이번 기술교류회는 20년간 축적된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물관리 협력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양 기관의 현장 경험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계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

☞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6164917>

K-water, 중국 장강수리위와 물관리 협력 20주년 기술교류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6.05.13 09:39 수정 : 2026.05.13 09:39

AI·디지털트윈 기반 수자원 관리 논의

공동연구·전문가 교류·국제협력 확대 추진



지난 12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에서 윤석대 K-water 사장(왼쪽 다섯번째)과 마수이산 중국 장강수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water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중국 장강수리위원회가 물관리 협력 2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수자원 관리 협력 확대에 나섰다.

13일 K-water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2일 대전 본사와 연구원에서 중국 수리부 산하 장강수리위원회와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어온 양 기관 협력 20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

장강수리위원회는 중국 최대 하천인 장강(양쯔강) 유역의 수자원 계획과 관리, 홍수·가뭄 대응 등을 맡고 있는 통합물관리 기관이다. 양 기관은 그동안 수자원 정책과 댐 운영, 수재해 대응 분야에서 기술과 운영 경험을 공유해 왔다.

아시아물관위원회(AWC) 활동 등을 통해 국제 협력도 이어왔다.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글로벌 사업 연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석대 K-water 사장은 마수이산 중국 장강수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표단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AI·디지털 기반 물관리 전환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측은 기후위기로 물관리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 예측과 통합 운영 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교류회에서는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수자원 관리'를 주제로 △수자원 정보 분석 및 물배분 기술 △댐 인프라 디지털트윈 구축·운영 △글로벌 수자원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K-water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댐 운영 고도화 방안을 소개했고, 장강수리위원회는 장강 유역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대규모 수자원 관리 경험을 공유했다.

장강수리위원회 대표단은 K-water 본사 물관리종합상황실과 충주댐 수력발전·수상 태양광 현장, 과천 한강유역본부 등도 방문해 디지털 물관리 운영 현황을 둘러볼 예정이다.

윤 사장은 "이번 기술교류회는 20년간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물관리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양 기관의 현장 경험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계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중 물관리 협력 20주년… AI·디지털 기반 미래 물관리 강화”

한국수자원공사·장강수리위원회 물관리 기술교류회 개최

이동근 기자 | 2026.05.13. 17:17:23



▲한국수자원공사가 중국 장강수리위원회와 협력 20주년을 맞아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미래 물관리 협력 강화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중국 장강수리위원회가 협력 20주년을 맞아 ‘제16회 한·중 정기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미래 물관리 협력 강화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2일 중국 수리부 산하 장강수리위원회 대표단과 함께 AI 및 디지털 기반 물관리 기술을 주제로 기술교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마수이산 장강수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대응 방안과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데이터 기반 예측과 통합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연구 확대와 전문가 교류,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 수자원 관리’를 주제로 수자원 정보 분석과 물배분 기술, 댐 인프라 디지털트윈 구축 및 운영, 글로벌 수자원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수자원공사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와 댐 운영 고도화 사례를 소개했으며, 장강수리위원회는 장강 유역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대규모 수자원 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장강수리위원회 대표단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의 물관리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디지털 물관리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이어 충주댐 수력발전 및 수상태양광 사업 현장과 과천 한강유역본부 물종합상황실 등을 견학하며 현장 중심의 기술 교류도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기술교류회는 20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물관리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다”며 “양 기관의 현장 경험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계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인 물관리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강수리위원회는 중국 최대 하천인 장강(양쯔강) 유역의 수자원 계획과 관리, 홍수·가뭄 대응 등을 담당하는 통합 물관리 기관이다.